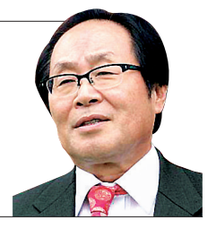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전법 없는 불교는 없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해는 사라지고 미움만 남아
극단의 진영서 지구별 불탄다
불을 완전히 끌 수는 없어도
관리하고 제어하는 힘 길러야

해법은 연기법 따른 팔정도에
부처님 전법의지를 되새길 때
새해 모두가 전법여정 나서자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단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제야의 종을 치고, 새해 첫날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바다와 산에서 야단법석을 했다. 연기의 광장에 법석을 마련한 것인가? 근래에 양자 물리학자인 카를로 로벨리(Carlo Rovelli)가 지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을 읽으면서 붓다의 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로벨리는 시간이 객관세계에 균일하게 흐르는 실체가 아니라 물질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들의 관계라고 본다. 즉 시간이 장소에 따라, 사건들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2500년 전에 붓다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色)이 생멸 변화를 할 뿐이며, 따라서 물질의 행(行)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인간이 만든 시간은 제행무상의 변화 흐름 속에서 인간이 만든 틈이다. 새해의 야단법석도 이 변화의 틈을 통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뜻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지구별 전체가 불타고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지구의 생명체는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낙원으로 불리는 호주에서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참혹한 산불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생태계의 종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서로 증오와 갈등으로 불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진영의 불길 속에서 미움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TV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난다. 새삼 붓다의 산상수훈이 생각난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과 우루벨라 지방의 가야시사산에 올라 붉은 저녁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설법했다. 〈잡아함 8권 197권 시현경〉.

"사람들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사람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눈이 타고 눈의 인식 대상인 물질(色)이 타고 있다. 의식이 타고 있고 의식의 인식대상인 생각(法)이 타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타고 있는가. 그것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모든 불타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열반 즉, 빨리어로 닙바나(nibbana)는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할지언정 불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지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다. 우리를 태우는 불의 원인은 바로 집착과 욕망, 증오와 분노, 이리석음과 무지의 삼독(三毒)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삼독의 구덩이에 빠진 줄도 모르고 불길 속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

이제 그 불길을 잡아야 한다. 그 불길을 잡는 방법은 오직 연기법과 중도 사상에 바탕을 둔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이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이것을 전할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입멸할까"하며. 그러나 붓다는 위대한 전법선언을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천신과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라.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웰라의 장군촌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 전법 없는 불교는 없다. 전법은 중생 구제의 길이다. 붓다에게 간곡하게 설법을 부탁한 범천의 말이 새삼스럽다. "세상에는 번뇌에 적게 물든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붓다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새해는 모든 불자가 전법을 위해 길을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원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긍정, 창조의 힘

얼마 전,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의식하는 마음'과 '창조하는 마음'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죠. 회사로 말하면 '의식하는 마음'은 계획하고 지시하는 사장과 같습니다. '창조하는 마음'은 사장이 지시하는 일을 심사숙고해 제품을 만드는 공장장이나 이를 판매하는 영업부장입니다. '의식하는 마음'이 어떤 생각을 지니면, 그 지시를 받아 행동으로 옮겨 실현 가능토록 처리하는 것이 창조하는 마음입니다. 의식하는 마음이 기분 좋지 않다든가, 업무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든가, 소극적 자세를 지닌다면 '창조의 마음'이 생기지 않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겠지요.

의식하는 마음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 힘이 넘친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한다면 회사는 번창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하는 마음'과 '창조하는 마음'이 서로 조화가 이뤄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마음'에서만 오로지 '창조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림 · 최주현

스스로 강한 의식 꾸준히 불어넣다보면
어느새 그 의식이 현실로 내게 다가온다

특히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처음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창조하는 마음'이 위대한 힘을 얻기 위해선 '의식하는 마음'을 완전히 관찰해 제대로 지시 받아야만 하죠. 그렇다면 '창조적인 마음'을 가꾸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건강에 자신 없다면 운동을 하거나 그 어떤 일상생활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는 건강해지고 있으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되뇌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이처럼 강한 의식을 날마다 불어 넣게 된다면 진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변할 것입니다. 강한 의식을 자신의 창조 의식 속에 저장한다면, 필요한 경우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 사고인 '창조적인 마음'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식의 생각'을 '창조의 생각'에 부여해 나타난 결과죠.

성공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잠재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긍정할 때 행운이 오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에겐 하늘도 복을 주기 싫을 것입니다.

만약,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길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를 '의식하는 마음' 속에 주입시키세요. 그러면 '창조적 마음'이 생깁니다. 긍정의 마음이 창조의 마음을 부르기 때문이죠.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동국대 경주캠 총장 선출에 부쳐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총장에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여성 교수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영경 교수는 불교계에서는 남편인 이병인 부산대 교수와 '불교 환경 종책의 브레인'으로 통한다. 실제, 이영경 교수는 1996년부터 조계종환경위원회의 전신인 사찰환경보존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도 8기 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경 교수는 종책 개발 및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며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영경 교수는 건학이념 증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불교문화 · 예술 활용 교육을 보완할 것과 불교에 기반한 인성 교육을 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교연구 및 사업을 위한 불교역사문화 콘텐츠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 불교계와 지자체, 동국대와 종단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약속했다.

이영경 교수의 목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지역 강소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영경 교수는 △대학 특성화 △지속가능한 학사구조 및 제도 구축 △대학역량강화 △구성원 주인의식 회복 △재정 및 기금확보 등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사회의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혁신이 필수다.

천년 고도 경주에 자리한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이영경 교수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三毒 불길 끄는 '소방승' 기대

2017년 2월, 前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은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모름지기 수행승은 삼독(三毒)의 불길을 잡는 소방관이 돼야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화마를 마주하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소방승'이 탄생한 것은 사막 위의 오아시스처럼 아름답고 시원하다. 무엇보다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가 소방관들의 심신치유를 위해 먼저 항만소방서에 소방승 위촉을 제안해 그 의미가 크다.

소방승 위촉과 함께 양측은 앞으로 긴급재난 현장 구호활동 시 협력하고, 영도구불교연합회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위한 교양교육과 행사를 지원한다. 이는 곧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관들에게 템플스테이와 명상지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수행자의 수행력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법화경〉 '비유품'의 '삼계화택의 비유'에서는 큰 기와집에 불이 나지만 아이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급한 아버지의 외침도 소용이 없다. 그러자 아버지는 장난감 수레가 밖에 있다고 말해 아이들을 구한다. 한편으로 수행자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관들은 항상 사고현장을 함께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마음의 여유를 가질 틈이 없다.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아픔은 덤이다. 수행자들이 소방관들의 마음을 돌봐야 하는 이유다. 삼계화택의 비유처럼 지혜와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0 謹賀新年 경자년
강남한양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허재균 합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30 반원상가 2층 전화 02)533-9058
